

봉축 영상메세지

봄날의 생명과 같이 천지의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으니 삼라만상의 모습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서는 모두가 존귀하고 스스로 온전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비분별을 멈추면 본래부터 완전한 나의 성품이 드러나고,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온 중생을 부처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을 부처로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회의 온갖 갈등과 남북의 대립, 어려운 국가 상황도 이러한 부처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면 국민의 행복과 국토의 안녕, 지구촌 공동체의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합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의 세상을 열어주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중생이 기뻐하는 참으로 빛나는 날로 만들어 갑시다.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